

팔복동 노후산단, '허브향기' 진동

팔복새마을주 주민들 '허브 공동체' 구성 폐·공가 철거 부지에 허브텃밭 조성 어르신예술단·마을축제 기획단도 운영

지난 반세기 동안 전주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악취,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팔복동 노후공단촌 일대가 봄을 맞아 산뜻한 허브향기가 나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 팔복새마을 주민들이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을 통해 향기 나는 허브마을 만들기 나섰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혔던 이 마을에는 얼마 전부터 허브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마을주

민들의 웃음꽃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팔복새마을 주민들은 팔복동 노후공단촌을 꽃향기가 가득한 '허브마을'로 탈바꿈시키자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허브 공동체'를 구성했다. 허브 공동체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지난 3월 새마을마 사업 대상지 내 주민 9명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텃밭조성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허브 공동체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 새마을을 조성사업을 진행

하면서 생긴 폐·공가를 철거한 부지에 허브텃밭을 조성해 허브를 심고, 수확한 허브로 허브 오일 등을 추출해 허브비누와 허브차를 만들 계획이다.

허브 공동체 참여 주민들은 현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등 매주 세 차례 오전 9시부터 문을 열고 나와 허브텃밭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허브제품 생산을 위한 교육 및 실습도 받고 있다.

팔복새마을에는 허브 공동체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고장 난 이웃의 물건 등을 수리해주는 만큼수리 공동체와 합창공연을 준비 중인 어르신 예술단, 새마을

축제를 구상하고 진행하는 마을축제 기획단 등도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추천마을 주민협의회는 각 공동체별 대표를 맡는 등 팔복새마을의 공동체 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영 전주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팔복 새마을을 조성사업을 통해 팔복동 주민들이 마을의 단려있던 문을 열고 나와 같은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주변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 더욱 화합하는 새마을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아시아 문화심장터 추진 해외사례 학습

김승수 전주시장, 일본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아시아 문화심장터 구현을 위한 정책연수의 일환으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우선, 김 시장은 일본 나오시마 섬을 방문해 현대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사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예술의 섬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추진배경과 주요정책 및 사업성과, 사업 운영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김 시장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을 비롯해 미술관과 호텔이 일체화된 베네세하우스, 현대예술을 살리는 지역공간만들기(이해 프로젝트) 등의 현장을 방문하고 사례조사에 나선다.

김 시장은 이어, 나오시마 프로젝트와 더불어 제2, 제3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이누지마와 테시마 등을 잇달아 방문해 테시마 프로젝트와 이누지마 프로젝트 등 일본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청년창업 공간 '숲' 만든다

전주시, 창업생태계 조성 위한 '상상놀이터' 운영 위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청년창업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공간인 '청년 숲'을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공동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의 취미활동과 동호회 활동 등 상호 소통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숲'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도시 기반 마련과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전주청년 상상놀이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청년숲'은 청년고용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문화와 예술, IT, 농업, 제조업 등 공통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진 만 39세 미만의 지역청년들이 관심분야별로 2인 이상 팀을 꾸려 청년숲에 자유롭게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10개 팀을 선정·지원할 계획으로, 청년숲에 참여한 청년들은 창업·창직활동을 통해 직업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또, 개인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며 창의와 창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도전과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등 청년들이 지역 청년고용문제 해결의 주체로써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청년 참여 20% 할당제를 포함한 '청년참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이 시장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

획이다.

이는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역량을 키워 지역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나아가, 시는 청년숲과 청년 참여 20% 할당제 등을 통해 지역청년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청년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의 번뜩이는 재능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추진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전주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전주청년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경찰관 폭행 20대 女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4시10분께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새벽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면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 3명은 뺨을 맞거나 팔목을 뜯기는 등 상처를 입었다. /김민근 기자

수정가능 펜으로 조업량 속인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해경, 단속 도중 붙잡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후 해상에서 조업 허가된 중국어선이 EZZ 어업법 위반으로 줄줄이 해경에 검거되고 있다.

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09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71톤, 승선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복사기로 위조한 수표 3일 군산경찰서는 포도삽으로 수표의 일련번호를 비문 뒤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일당을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위조한 10만원권 수표들.

이 어선들은 그물을 끌어 싸늘이 조업하는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으로 지난 1월 4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들어와 총 59차례 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 작성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일지는 허가된 어획량에 맞게 조업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할 수 없는 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배들은 수시로 수정이 가능한 펜을 사용해 실제 조업량을 속이려 했다는 것.

해경은 지난해 말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경 대응 방침 이후 폭력 저항하

는 무려가 중국어선 수는 크게 줄어 들고 있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의 품수는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정밀한 검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 김기석 외사계장은 "저인망 중국어선의 조업이 6개월간 금지

되는 오는 16일을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각 1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김민근 기자

PC방 흥기 협박 30대 男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로 옆좌석에 있던 손님에게 흥기를 보여 주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흥기를 물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시내의 한 PC방에서 혼잣말로 떠드는 손님 A씨 때문에 게임에 방해받자 "너만 게임을 하느냐"며 욕을 하고 A씨 무릎 위에 흥기를 올려놓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연구원 허위 등록 보조금 편취 전주대 A교수 불구속

전주지검은 3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수억원의 국가연구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주대학교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2,000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할 것 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해 610여만원을 받아 쟁전 혐의도 받고 있다.

신화협력 연구비는 중소기업청을 통

해 약 90%가 지원되며, 신화협력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뒤늦게 내부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신화협력 관련 연구비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연구비 편취, 국가연구보조금 횡령 등 교단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